

배포 일시	2022. 10. 4.(화)		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	책임자	과 장 정수호 (044-201-3988)
	철도투자개발과	담당자	사무관 서형우 (044-201-463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신안산선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 10. 3. MBC) >

- ◆ 신안산선 공사 시 공사비가 1/3이 감소하는 공법(저심도→대심도)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급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지적
-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심사와 관리가 필요

- 신안산선 사업은 '15년 민자적격성 조사 시 저심도 공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며, 총사업비는 3조 9,916억원('13년 불변가)이었으나,
 - 사업자 모집 및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대심도 공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, 총사업비는 6,451억원 감소한 3조 3,46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 - 이에 따라, 정부지급금과 민간투자비가 각각 약 3,2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현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등에 따라 민자철도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,
 -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'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' 지정을 위한 「철도사업법」, 국가철도공단에 시설 관리·감독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「철도공단법」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